[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115



The Jeju Institute 제주연구원 | www.jri.re.kr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10.21~2026.10.27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 1
- 경제·관광 ····· 2
- 지역·사회 ·····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투자(미래), 평가(영향평가), 공항(갈등), 성과(책임), 공급(용수)
경제·관광	수출(돼지고기), 창업(청년), 투자(펀드), 경영(소상공인), 감귤(출하)
지역·사회	태풍(참피), 범죄(수사), 학생(대회), 연구(교수), 예방(건강)

※ 분석 기간 : 26.10.21.~26.10.27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투자(미래)	- 2030년까지 1조원 미래성장펀드 조성 계획 -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 신설 - 추자해상풍력 재추진…도민펀드 현실성 공방
	평가(영향평가)	-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가결 -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처리지침 제정 추진 -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공항(갈등)	- 행안위 국감서 제2공항 갈등조정 지연 우려 - 송영훈 의장·진보당 대표, 제2공항 입장 표명 - 전국체전 개막일 항공편 지연 놓고 도 책임론
	성과(책임)	- 도-행정시 정책수행협약…책임행정 강화 - 특별자치도 20년, 도민 성과 체감은 낮아 - 복권기금 성과평가 대응…기금 확보 총력
	공급(용수)	- 용수 공급 논란 애월포레스트 재심의 결정 - 용담동 4700가구 단수…늑장 안내에 지사 사과 - 노후 상수관 정비·방치 관정 복구 추진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수출(돼지고기)	- 제주산 돼지고기, 전국 수출의 97.3% 차지 - 반도체 힘입어 9월 무역수지 첫 1억달러 흑자 - 제16회 제주 수출인의 날 포상 신청 접수
	창업(청년)	- '2026 제주 창업페스티벌' 11월 개최 예정 - 도내 신생기업 3곳 중 1곳만 5년 생존 - 청년 창업·정착 지원 행사·프로그램 잇따라
	투자(펀드)	- '2026 인베스터데이'로 유망기업 투자 연계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5년간 1618억원 투자 - 펀드 조례 개정으로 투자 범위 확대 추진
	경영(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위기 조기경보 체계 가동 - 소상공인 연탄 설비 전환·고효율 설비 지원 - 28일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종합상담회
	감귤(출하)	- 노지감귤 하루 1200톤 출하…도매가 7% 하락 - 잦은 비에 노지감귤 수부증·부패 확산 - 감귤 수급조절 기능 한계 도의회 지적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태풍(참피)	- 태풍 '참피' 북상에 소방·도·해경 비상대비 - 사흘 비바람에 침수·시설물 피해 잇따라 - 가장 늦은 영향 태풍 기록…31호 '인파' 긴장
	범죄(수사)	- 제주경찰청 국감서 부실 수사·대응 질타 -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사전예방체계 대전환 - 동부서 수사인력 보강…1인당 사건 전국 웃돌아
	학생(대회)	- 제주 학생선수단 전국체전 메달 51개 최고 성적 -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서 8개 상 수상 - 제주대 학부생 큐브위성, 경연대회 최종 선발
	연구(교수)	- 제주대 연구자 20명 '세계 상위 2%' 선정 - 백록담 조면암돔·모세왓 형성 과정 규명 - 국제인삼심포지엄서 홍삼 항노화 연구 발표
	예방(건강)	- 26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작 - 감귤 수확철 AI 치안드론 절도 예방 순찰 - 경찰-서귀포농협, 보이스피싱 예방 협약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10월 21일~10월 27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10건임**

- 정치・행정 분야 326건, 경제・관광 155건, 지역・사회 429건임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투자(미래), 평가(영향평가), 공항(갈등), 성과(책임), 공급(용수)**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투자 (미래)**	- **2030년까지 1조원 미래성장펀드 조성 계획** · 제주도는 26일 '제주 미래성장펀드 조성 기본전략(2027~2030)'을 공개하고도 출자금 1000억원을 마중물로 정부 정책펀드·정책금융 3000억원, 공공기관·민간자본 6000억원을 연계해 2030년까지 1조원 규모 누적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 펀드는 기업성장 2500억원, 인프라·전략 5000억원, 지역가치·콘텐츠 1500억원, 전략투자 1000억원 등 4대 계정으로 구성되나, 앵커 출자자 확보와 운용주체 결정이 과제이고 2030년에 3787억원이 몰려 사업 연속성 우려도 제기됨.

정치·행정	투자 (미래)	-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 신설** · 제주도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지정 후 10년이 지나고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지구는 투자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함. · 지정업종과 주요 사업내용이 유지되는 범위의 투자자 변경 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간소화했으나, 경미한 변경 범위를 10%에서 20%로 넓히려던 계획은 상임위 심의에서 투자금액·고용규모 2개 항목이 현행 10% 이내로 유지돼 일부 제동이 걸림. - **추자해상풍력 재추진…도민펀드 현실성 공방** · 22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의원은 16조원이 넘는 추자해상풍력을 펀드로 추진하는 현실성을 묻고 연간 1300억원 납부 조건으로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된 점을 지적했으며, 용혜인 의원은 바람연금에 투자하지 않은 도민의 몫을 질의함. · 위성곤 지사는 연간 1300억원 기금 요구는 잘못된 정책이었다며 민간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민펀드는 사업비의 20% 수준으로, 계통은 전남과 협의해 연계하겠다고 답했고 공모 조건을 고쳐 연내 재개 방침을 밝힘.
	평가 (영향평가)	-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가결**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찬반 갈등을 빚어온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고, 동의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4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통과됨. · 심사에서는 평가서상 시설 60곳 중 38곳이 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위원회는 교육시설 학습권·통행권 확보, 주변 환경에 맞는 수종 식재, 저감방안이 없는 7곳의 소음 대책 마련, 사후환경조사 시 이행 점검을 주문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처리지침 제정 추진** · 제주도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처리규정을 준용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평가서 접수부터 의견수렴, 현지조사, 심의·자문, 협의내용 결정·통보까지 단계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임. · 조사자료와 환경영향 예측 결과의 신뢰성, 저감 대책의 적절성·실효성을 종합 검토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전문기관 추가 검토와 합동 현지조사를 하며, 1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아 11월 중 제정할 예정임. -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 처리지침안에는 주요 환경 쟁점에 조정 의견을 제시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근거가 담겼으며, 위원장인 담당 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3명과 전문기관·법조계·학계·지역주민·환경단체 추천 위촉직 9명 등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 도는 제2공항 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2개월 이

정치·행정	평가 (영향평가)	내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며 사업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사회협약위원회 의결로 꾸리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별도 운영돼 혼선 우려도 나옴.
	공항 (갈등)	- **행안위 국감서 제2공항 갈등조정 지연 우려** ·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의원은 갈등조정협의회가 국가사업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심의기구인지 따지며 법정 절차와 별개 절차를 계속 추가하면 새로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강명구 감사반장은 하나로 운영하겠다던 협의회를 한 달 만에 둘로 나눈 혼선을 비판했고, 위성곤 지사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 중이며 교차검증 기관을 2곳에서 4곳으로 늘려도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답함. - **송영훈 의장·진보당 대표, 제2공항 입장 표명** · 송영훈 도의회 의장은 23일 제455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도정이 9월 발표한 3대 방침을 한 달 만에 바꿔 별도 협의회 운영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두 협의회의 법적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함. · 같은 날 제주를 찾은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위 지사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 민주적 절차로 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중앙정부가 도민 결정을 수용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함. - **전국체전 개막일 항공편 지연 놓고 도 책임론** · 2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남근 의원은 전국체전 개막일인 16일 제주공항 운항 예정 513편 중 237편(46%)이 지연되고 김포·김해행 일부가 인천으로 회항했는데도 도가 지연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타함. · 이 의원은 공역 통제와 운항 증가가 예상됐던 만큼 관계기관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며 도 차원의 TF와 G20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한 항공교통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고,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공항공사·제주지방항공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함.
	성과 (책임)	- **도-행정시 정책수행협약…책임행정 강화** · 위성곤 지사와 이상봉 제주시장, 김희찬 서귀포시장은 27일 정책수행협약을 체결했으며, 행정시장은 핵심책임과제 각 2개와 시민체감과제 5개, 도정연계과제 13개를 추진하고 도는 행정·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이행을 뒷받침하게 됨. · 협약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분기별 성과과제 점검과 정례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우수사례 확산과 개선과제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나, 일각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사실상 포기한 단기처방이라는 해석도 나옴. - **특별자치도 20년, 도민 성과 체감은 낮아**

정치·행정	성과 (책임)	· 제주연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 평가 및 미래 발전 전략 수립 연구' 도민 조사(513명)에서 출범 인지도는 5점 만점에 3.11점이었고, 변화 체감 10개 항목 중 행정 자율성 제고 기여가 3.27점으로 가장 높았음. · 반면 '성과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3.0점으로 가장 낮았고 33개 세부 항목 평균이 2.77~3.26점이었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3개 항목이 3점 미만, 제주시·서귀포시 간 균형 발전이 2.77점으로 최저를 기록함. **- 복권기금 성과평가 대응…기금 확보 총력** · 제주도는 23일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배분액 감소 추세에 맞서 평가 순위 상향 전략을 점검했으며, 올해 사업은 10개 2075억원, 2027년 예산안은 2092억원 규모임. · 도는 사업부서 팀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실적보고서 작성과 성과지표 설계에 대응하고 성과·예산 연계와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며, 송영훈 의장은 평가 순위 하락으로 올해와 내년 320억원 가까운 기금이 줄었다고 지적함.
	공급 (용수)	**- 용수 공급 논란 애월포레스트 재심의 결정** ·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3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으며, 사업은 한화 계열이 참여해 상가리 일대 125만㎡에 1조7000억원을 들여 2036년까지 숙박시설 1060실 등을 조성하는 내용임. · 부지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라 어승생정수장 물을 받아야 하나 증설 계획이 2035년으로 10년 미뤄져 하루 물 사용량 4327톤의 공급 근거·교통계획 보완이 요구됐고, 문대림 의원은 행정이 사업자 용수 책임을 대신해선 안 된다고 지적함. **- 용담동 4700가구 단수…늑장 안내에 지사 사과** · 23일 오전 11시30분께 용담수원지 펌프 고장으로 용담1·2동 일대 약 4700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도는 오라정수장 지하수 관정을 가동하고 급수차를 지원했으나 오후 11시부터 순차 재개돼 24일 오전 3시께에야 대부분 정상화됨. · 제주시의 안내 문자는 오후 5시20분께 수도계량기 등록자에게만 발송돼 임대 상인들이 받지 못하는 등 불만이 컸으며, 위성곤 지사는 26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주민에게 사과하고 수계 전환 방안과 대응 매뉴얼 등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을 지시함. **- 노후 상수관 정비·방치 관정 복구 추진** · 서귀포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반기 7억5500만원을 들여 배·급수관 1665m(9개소) 정비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3억4000만원으로 노후 배급수관 676m(5개소)를 정비해 누수를 예방하고 급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임. · 제주도는 전체 수자의 96%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만큼 올해 3억원을 투입해 방치된 지하수 관정 26곳을 원상복구하며, 상반기 21곳에 이어 하반기 5곳을 추가 복구해 오염물질의 지하수 유입을 차단할 방침임.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수출(돼지고기), 창업(청년), 투자(펀드), 경영(소상공인), 감귤(출하)**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경제·관광	**수출 (돼지고기)**	- **제주산 돼지고기, 전국 수출의 97.3% 차지** · 9월 말 기준 제주산 축산물 수출은 173톤, 329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만달러의 7배를 넘었고, 제주산 돼지고기는 전국 수출의 97.3%, 냉장 소고기는 33.8%를 차지해 2023년 13.4%, 2.8%에서 비중이 크게 높아짐. · 수출액의 81%인 267만달러가 지난해 11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싱가포르 시장에서 나왔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와 도축장 2곳·가공장 7곳 등 싱가포르 수출 승인을 받은 작업장 9곳이 기반이 됨. - **반도체 힘입어 9월 무역수지 첫 1억달러 흑자**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9월 제주 수출액은 1억4145만달러로 270% 늘고 수입은 3156만달러로 14.5% 줄어 무역수지가 1억989만달러 흑자를 기록, 사상 처음 월 1억달러를 넘었고 6월부터 4개월 연속 흑자임. · 반도체 수출은 9862만달러로 246% 늘어 전체의 69.7%를 차지했고, 농수산물 수출은 580만8000달러로 10% 늘었으며 넙치는 15.8% 감소한 반면 싱가포르 중심의 가축육류 수출은 1087.4% 증가함. - **제16회 제주 수출인의 날 포상 신청 접수** · 제주도는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하고자 11월 2일까지 '제16회 제주 수출인의 날' 포상 신청을 받으며, 수출대상 1곳과 수출우수상 3곳, 수출장려상 4곳 등 8개 기업과 유공자 6명 이내를 선정할

경제·관광	수출 (돼지고기)	예정임. · 수출대상은 최근 3년간 수출실적과 일자리 창출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고 우수상은 해외시장 다변화·첫 수출·연속 수출, 장려상은 농축산물·수산물·제조업·IT 등 지식산업 분야로 나눠 선정하며, 시상은 12월 9일 연계 행사에서 열릴 예정임.
	창업 (청년)	- **'2026 제주 창업페스티벌' 11월 개최 예정** · 제주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4~6일 쉐라톤 제주와 제주시 원도심에서 '제1회 로컬창업 페스타 in 제주'와 'JOIN 2026'을 연계한 '2026 제주 창업페스티벌'을 열 예정이며, 창업가·투자자 등 연인원 3000여명이 참여할 전망임. · 로컬창업 페스타는 로컬 투자 로드쇼와 대형 유통사·해외 바이어 1대 1 상담, 수출 쇼케이스를 운영하고, 5~6일 스타트업 위크에는 이세돌 기사의 'AI 창업의 미래' 강연과 창업도시 제주 전략 토론회가 마련될 예정임. - **도내 신생기업 3곳 중 1곳만 5년 생존** ·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에 따르면 제주 활동기업은 12만413개로 1.9% 늘었으나 신생기업은 1만4935개로 0.4% 증가에 그쳤고, 신생기업 1년 생존율은 63.0%, 5년 생존율은 35.1%로 집계됨. · 창업기업 절반가량만 2년 이상 생존했으며 7년 생존율은 29.8%까지 낮아졌고, 매출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34개로 전년보다 17개 줄었으며 그중 5년 이하 가젤기업도 10개에서 6개로 감소함. - **청년 창업·정착 지원 행사·프로그램 잇따라** · 공무원연금공단은 24일 제주본사에서 JDC·제주더큰내일센터 등과 '2026 GEPSTAY: 제주청년 페스타'를 열어 도내 청년 창업기업 15개사의 홍보·판매 부스와 11개 기관 청년 정착 지원 협약, 청년 창업자 네트워킹 등을 진행함. · 표선면의 체류형 청년마을 '오아시스 마을'은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 후 1·2기 모집에 전국 229명이 지원해 23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자원 활용 창업 실험을 거쳐 2028년까지 국비 6억원으로 상품화와 자체 수익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투자 (펀드)	- **'2026 인베스터데이'로 유망기업 투자 연계** · 제주도는 22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스페이스에서 '2026 인베스터데이'를 연다고 밝혔으며, 바이오·라이프테크 등 미래성장 분야 IR 발표기업 5개사와 DSC인베스트먼트·BNK벤처투자 등 투자사 7개사 간 일대일 투자상담이 마련됨. · 도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도 운용펀드의 직접투자 검토와 민간 후속투자 연계를 지원하며, 6월 IR 참여기업 1곳이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벤처펀드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기업설명회 발표기업은 이번까지 모두 20개사가 됨.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5년간 1618억원 투자** ·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5개년 계획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해 1618억원 규모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3대 목표, 4대 전략, 9개 과제, 75개 실행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도내 로컬기업 555개사 조사에서 78%가 기반 마련·성장 진입 단계로 확인돼 성장단계별 지원과 브랜드·마케팅, 정책금융·투자 연계를 강화하며, 2027~2028년 대표기업 선발·시범 거점 조성, 2029~2030년 특화 육성·투자 연계를 추진할 계획임.

경제·관광	투자 (펀드)	- 펀드 조례 개정으로 투자 범위 확대 추진 · 제주도는 23일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양한 정책 분야의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자 벤처·중소기업 육성 중심이던 공공펀드의 조성·운용 범위를 도내 기업·산업 전반의 성장과 지역활성화 분야까지 넓히기로 함. · 개정안은 농식품경영체 투자 조합과 지방자치분권·지방소멸 대응 출자 대상을 펀드 정의에 포함하고 조성·출자·운용·회수와 운용사 선정 사항을 정비하며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도민 의견은 11월 12일까지 받음.
	경영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위기 조기경보 체계 가동 · 제주도는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민생경제상황실 경제지표와 연계해 올해 보증 이용 소상공인 1만3039곳을 분석한 결과 45.4%인 5921곳에서 경영위기 징후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힘. · 경영위험군 5238곳 중 65곳에 전문가 밀착 컨설팅과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경영개선 이행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중·저신용자는 특별보증·저금리 대환을, 부실위험군 683곳에는 채무조정과 폐업·재기지원을 연계할 방침임. - 소상공인 연탄 설비 전환·고효율 설비 지원 · 제주도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KB금융그룹이 주관하는 '2026년 KB금융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5500만원을 확보하고 도내 소상공인 25개소 내외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기로 함. · 조리용 연료로 연탄을 쓰는 골목상권 외식업소를 우선 선정해 기존 설비 철거와 친환경 조리기기 교체를 돕고 일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고효율 냉난방기와 인덕션 도입을 지원하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연내 시설 개선을 마칠 계획임. - 28일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종합상담회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와 함께 28일 꿈이룸 제주점에서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종합상담회'를 열 예정임. · 신용회복위원회와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은행 등이 참여해 정책자금 융자와 신용보증, 채무조정, 사업 정리, 취업·재창업 지원까지 1대 1 상담을 제공하며, 희망자에게는 상권 현황과 매출 흐름을 분석한 경영진단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임.
	감귤 (출하)	- 노지감귤 하루 1200톤 출하…도매가 7% 하락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온주감귤 예상 생산량은 44만 3300톤으로 7.8% 늘고 당도는 8.5브릭스로 높아졌으며, 하루 평균 출하량 약 1200톤에 누적 유통처리량이 1만8540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함. · 누적 평균 도매가격은 5㎏당 9733원으로 지난해보다 7% 낮아 극조생 출하 증가와 잦은 비에 따른 품질 저하, 소비 부진이 원인으로 꼽혔으며, 도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상품외감귤 유통을 집중 단속함. - 잦은 비에 노지감귤 수부증·부패 확산 · 서귀포지역에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비가 이어지면서 극조생 노지감귤 수확이 늦어지고 나무에 달린 채 썩는 수부증이 확산됐으며, 유통센터에 입고된 일부 감귤

경제·관광	**감귤 (출하)**	은 이틀 만에 약 30%가 부패하고 내륙 유통 과정에서 4~5%가 추가로 썩음. ·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비가 그친 뒤 등록된 저장병 방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되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고, 수확 과실은 2~3일 예조한 뒤 썩은 과실을 철저히 선별해 출하하라고 당부함. **- 감귤 수급조절 기능 한계 도의회 지적** · 도의회 농수축위원회 강충룡 위원장은 21일 극조생 감귤 가격 하락과 관련해 출하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는데도 정확한 생산량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며 11월 관측조사부터 극조생 물량을 다른 온주감귤과 구분해 별도 산정하라고 주문함. · 강 위원장은 3년간 87억원 규모로 민간위탁하는 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감귤·당근·월동무 생산·출하 조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품목별 성과 분석과 수급조절 대책을 요구했고, 도는 센터 역량 강화를 약속함.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태풍(참피), 범죄(수사), 학생(대회), 연구(교수), 예방(건강)**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table>
<tr><td rowspan="2">지역·사회</td><td>태풍
(참피)</td><td>- 태풍 '참피' 북상에 소방·도·해경 비상대비
· 제주소방안전본부는 22일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소방차량 157대와 수방장비 205대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하천 범람 우려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85곳 점검을 강화했으며, 119 신고접수대를 최대 31대까지 늘릴 계획을 세움.
· 제주도는 23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회의에서 낙엽에 따른 배수시설 막힘과 간판·가설물 등 강풍 위험시설물 점검, 항공기 결항 시 공항 체류객 대응을 논의했고, 제주해경은 24일 한림항·성산포항 등의 어선 피항·계류 상태를 점검함.
- 사흘 비바람에 침수·시설물 피해 잇따라
· 23일부터 25일 오전 10시까지 한라산 삼각봉 295㎜, 성산 222.2㎜, 제주 178.7㎜의 비가 내렸고, 소방에 접수된 안전조치는 8건으로 화북1동 중앙분리대 전도, 이호2동 비닐하우스 침수, 안덕면 지하 펌프실 침수 등이 발생함.
· 24일 제주공항에서 국내선 9편과 국제선 16편 등 25편이 결항하고 200여편이 지연됐으며, 가파도·마라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고 애월읍 농수축박람회와 서귀포칠십리축제 거리 행진·개막식이 취소되는 등 각종 행사도 차질을 빚음.
- 가장 늦은 영향 태풍 기록…31호 '인파' 긴장
· 제30호 태풍 '참피'는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태풍경보가 발효되며 1951년 공식 기록 이후 1998년 '제브'를 넘어 우리나라에 가장 늦게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됐고, 26일 새벽 서귀포 남남동쪽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소멸함.
· 그러나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31호 태풍 '인파'가 30일께 중심기압 915hPa, 최대풍속 초속 55m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이어서 진로 변화에 따라 제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td></tr>
<tr><td>범죄
(수사)</td><td>- 제주경찰청 국감서 부실 수사·대응 질타
· 22일 행안위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실종신고 허위종결과 스토킹 피해자 피살, 부녀 사망 사건 대응이 도마에 올랐으며, 의원들은 반의사불벌죄 폐지에도 소극 대응한 점과 보완수사 요구 비율 상승폭 전국 1위 등 수사 품질 관리 부실을 질타함.
· 김병찬 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실종팀 야간 2인 근무와 종결 절차 강화, 관계성 범죄 약 2000건 전수 점검, 고위험 가해자 구속·유치 등 격리조치 강화와 수사인력 40명 보강 방침을 밝힘.
-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사전예방체계 대전환
· 제주경찰청은 26일 김병찬 청장 주재로 모든 경찰서장과 지구대·파출소장이 참여한 '반사회적 강력범죄 사전예방체계 대전환'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잇따른 관계성 범죄 살인사건과 인천 이상동기 무차별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함.
·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실효적 분리조치, 흉기 범죄 대응 형사활동 강화, 실종수사 관리체계 구축, 경찰서장 수사지휘 강화, 개정 형사소송법 조기 안착,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논의했으며 위험 징후 조기 파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 동부서 수사인력 보강…1인당 사건 전국 웃돌아
· 이병학 신임 제주동부경찰서장은 26일 취임 간담회에서 올해 수사인력을 22</td></tr>
</table>

지역·사회	범죄 (수사)	명 보강했지만 경찰관 1인당 사건 접수가 107.1건으로 전국 평균 91건보다 많고 평균 처리 기간은 47.5일로 지난해보다 1.1일 늘었다고 밝힘. · 동부서가 제주경찰청 관계성 범죄의 45%를 맡는 만큼 피해자가 사건 처리를 원치 않아도 추가 범죄 가능성을 살펴 접근금지·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실종신고는 팀장·과장·서장 3단계 확인을 거쳐 종결하며 제주 중수청 설치 필요성도 제기함.
	학생 (대회)	**- 제주 학생선수단 전국체전 메달 51개 최고 성적** ·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2일 폐막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 18세 이하부 선수단은 금메달 15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19개 등 51개를 획득해 종전 최다인 2023년 41개를 넘어 최근 10년 최고 성적을 거둠. · 지난해 25개보다 26개 늘어난 가운데 올해 30개 학교·팀이 32개 종목에 참가해 14개 종목에서 입상했으며 다이빙 4관왕 2명 등 다관왕 5명이 배출됐고, 학교별로는 남녕고가 금메달 9개를 포함해 34개로 가장 많은 메달을 따냄. **-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서 8개 상 수상** · 제주도교육청은 7~8일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린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에 도내 고교 발달장애 학생 12명이 출전해 금상 3개, 은상 2개, 동상 1개, 장려상 2개 등 8개 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힘. · 분과별로 6명씩 출전한 가운데 특수학급 분과에서는 바리스타와 외식서비스, 제품포장 종목에서 금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차지하고 가죽공예·사무지원 은상과 로보트론 동상을 더했으며, 특수학교 분과에서도 가죽공예와 외식서비스에서 장려상을 수상함. **- 제주대 학부생 큐브위성, 경연대회 최종 선발** · 제주대 학부생 'Blue Orbit' 팀은 우주항공청 주최 '제7회 초소형위성 경연대회' 초급위성 분야에서 전국 16개 대학 23개 팀 가운데 최종 5개 팀에 선정돼 2028년까지 개발을 마치고 누리호 등 국내 발사체로 발사에 도전할 예정임. · 위성 전공 학과와 연구시설이 없는 여건에서 항공우주 동아리 ACE-L을 중심으로 기계·전자·통신·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광생이모자반을 실시간 감시하는 큐브위성을 개발할 계획이나 부품 수급·시험 검증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과제임.
	연구 (교수)	**- 제주대 연구자 20명 '세계 상위 2%' 선정** · 제주대는 엘스비어와 미국 스탠퍼드대 이오니디스 교수가 스코퍼스 피인용도 등을 분석해 발표하는 '전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소속 연구자 20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전 생애 부문 8명과 단일 연도 부문 19명이 선정됐다고 밝힘. · 20명 중 15명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선정됐고 7명은 두 부문에 모두 이름을 올렸으며, 임용 5년 이내 신진 연구자는 지난해 1명에서 올해 4명으로 늘었고 대학은 재직 단계별 맞춤형 전 주기 연구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함. **- 백록담 조면암돔·모세왓 형성 과정 규명** ·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백록담과 모세왓 일대 암석·광물을 분석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지오사이언시스 저널'에 게재해, 지하 마그마 저장소에 새 마그마가 여러 차례 유입되며 모세왓 유문암과 백록담 조면암이 차례로 분출했을 가능성을 제시함.

<table>
<tr><td rowspan="2">지역·사회</td><td>연구
(교수)</td><td>· 연구진은 모세왓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 전 약 815~834도로 저장됐던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0~2024년 한라산 지질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번 성과는 지난해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모세왓과 백록담의 형성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함.
- 국제인삼심포지엄서 홍삼 항노화 연구 발표
· 고려인삼학회는 26~29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14회 국제인삼심포지엄'에서 홍삼 항노화 효과 연구를 공개했으며, 상하이교통대 교수팀의 40~75세 성인 900명 12주 섭취 분석에서 깊은 수면시간 12.5분, 총 수면시간 35.9분 증가가 확인됨.
· 건양대 연구팀은 치매 생쥐 실험에서 홍삼 다당체의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감소를,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와 충남대 연구팀은 지방간 지표와 근력 저하 개선을 확인했으나 대부분 세포·동물실험 단계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임.</td></tr>
<tr><td>예방
(건강)</td><td>- 26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작
· 제주도는 26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와 도 자체사업 대상인 60~64세(1962~1966년생) 도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임.
· 60~64세는 백신 소진 시까지 보건소에서만, 어린이는 제주보건소가 아닌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해야 하며,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도 가능해 대상별 이용기관 사전 확인이 요구됨.
- 감귤 수확철 AI 치안드론 절도 예방 순찰
·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3년간 감귤 절도 발생 추세를 고려해 수확철 감귤 농가와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범순찰에 나서며, 범죄 취약 시간대에 3개 구역을 순환하고 마을 창고와 개인 저장고의 잠금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임.
· 농협 서귀포지부가 파악한 방범 취약 농가와 주민 요청 장소에 대한 응답순찰을 강화하고, CCTV 사각지대와 외곽 과수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단 AI 치안드론을 투입하며 시니어클럽·주민자치경찰대와 함께 저장시설 방범 상태를 살필 예정임.
- 경찰-서귀포농협, 보이스피싱 예방 협약
· 제주경찰청과 서귀포농협은 27일 제주경찰청 한라상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맺고 신속 신고·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과 도민 대상 합동 현장교육, 지역 특색을 살린 홍보 콘텐츠 발굴을 함께 추진하기로 함.
· 두 기관은 예방 문구를 담은 감귤상자 부착용 스티커 1000매와 예금통장 부착용 스티커 5000매를 제작하는 등 지역 유통망과 금융생활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펼치고, 피해 의심 고객은 경찰과 신속히 연계할 방침임.</td></tr>
</table>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